

■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동시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2월 24·25일 후보 등록...2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선관위에 첫 일괄 위탁 공직선거법 적용...3월 11일 투표

광주 17곳·전남 182곳 유권자 47만여명 '작은 지방선거'

3월11일에 임기 4년의 농·수·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190여개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을 한꺼번에 뽑는 것이다. 규모면에서도 '작은 지방선거'로 불리만큼 주목받고 있다.

◇선관위 위탁 첫 전국 동시 선거=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로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 관리하

기는 했지만 농·수·축협, 산림조합별로 제각각 실시되면서 일부 과열선거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지거나 고소·고발 등 지역 내 갈등도 소모전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꺼낸 것이 '동시 선거' 카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1년 농협법 등의
개정으로 전국 동시선거 근거 규정에 마

런되는데 따른 첫 선거로, 현행 공직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관위가 위탁관리해 치러진다. 선관위는 지난해 9월21일 전국 각 농수산조합으로부터 선거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선거일인 3월 11일
까지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등 공직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공직선
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권자가 전국민
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제한된 것 정도다.

광주의 선거구는 모두 17개로 서구 3곳, 남구 2곳, 북구 3곳, 광산구 9곳 등이다. 유권자는 3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입후보자는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은 총 182곳이 대상이다. 나주시가 15개로 가장 많은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며 해남군 14곳, 여주시 13곳, 영암군 11곳, 담양·고흥군 10곳, 장성·장흥·무안군 9곳, 화순·영광군 8곳, 광양시·보성·함평·신안군 7곳, 순천시·곡성·구례·완도군 6곳, 목포시·진도군 5곳, 강진·완도군 등이다.

유권자는 44만여명으로 추산되며, 500여명의 후보자가 출마 평균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절차는=선거 일정이 지난해 9월21일 각 지역 선거위원회에 위탁이 신청된 직후부터 개시됐다.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공무원이나

조합 상임이사나 직원 등은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사퇴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일 현재 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한 임직원은 10여명 안팎으로 집계돼, 현지 조합장을 제외하곤 조합 임·직원의 출마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일까지 모든 기
부행위는 제한된다. 조합장 후보는 물론
배우자, 조합원 모두가 해당된다.

동시선거인 만큼 선거기간과 운동 방식을 간소화한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이며 조합원들의 눈을 가리고 치르는 선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닛새동안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이며 후보자등록 기간은 2월 24~25일이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 후보자만 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병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를 앞두고 관할 시·도 선관위는 광주 지역 40여명, 전남 300여명의 공명 선거지원단을 모집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